

조선 의서 중의 藥性歌에 대한 연구*

- 『제중신편』, 『의종손익』을 중심으로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¹

오재근¹ · 윤창열^{1**}

A Study on the Nature of medicinals in Rhymes of Medical books in Chosun dynasty

Oh Chae-kun¹ · Yoon chang-yeol^{1 **}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 This paper is written to identify the origin of the nature of medicinals in Rhymes(藥性歌) in Korean medical books and to analyze their creativity.

Methods : We analysed the nature of medicinals in Rhymes contained Chinese and Korean medical books.

Results : The Korean medical book *New Edition on Universal Relife*(濟衆新編), published by Chosun government, recorded the nature of medicinals in Rhymes *Recovery from All Ailments*(萬病回春) mostly untouched. It can be evaluated the early model of Chosun's nature of medicinals in Rhymes. *New Edition on Universal Relife, Gains and Losses of Medical Orthodoxy*(醫宗損益) added new rhymes using familiar herbs and vegetables got easily, most new rhymes founded medicinal part of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東醫寶鑑).

Conclusions : The nature of medicinals in Rhymes is an approach to simplify and improve access on herbal medicine, and is quoted in various forms throughout medical books of Chosun. The entitling it as 'scientific research of herbal medicine based on the nature of medicinals in Rhymes' can clearly be seen as description about superficial result, to persist the decadence of Chosun medicine.

Key Words : Sakae Miki(三木榮), the Nature of medicinals in Rhymes(藥性歌), *Recovery from All Ailments*(『萬病回春』), *New Edition on Universal Relife*(『濟衆新編』), *Gains and Losses of Medical Orthodoxy*(『醫宗損益』)

I. 緒 論

* 본 논문은 오재근의 동일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 발표하는 것임.

** 교신저자 : 윤창열.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Tel : 042-280-2601, E-mail : yooney@dju.kr
접수일(2011년 4월14일), 수정일(2011년 5월20일), 게재확정일(2011년 5월20일)

한의학 또는 중의학과 관련된 여러 문장들 중에는 노랫글인 歌賦 형식의 문체가 자주 등장한다. 歌賦는 한 글자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조를 지니고 있는 한자어의 특성을 활용한 문장 양식으로 문장 구조가 간단하고 운율을 지니고 있어 기초 이론에서부터 本草, 湯液, 鍼灸, 診斷 등 한의학의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그 중 本草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本草歌賦는 대략 205종으로 전체 歌賦 형식

문장의 1/5을 차지하고 있다¹⁾. 이처럼 本草 부문에서 歌賦의 활용도가 높았던 이유는 지식 전달이나 실제 임상 활용에 편리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本草를 채취, 가공하거나 또는 직접 소비하였을 일반 민중들이 관련 지식을 향유하는데 유리하였기 때문이었다²⁾.

현전하는 가장 이른 藥性歌 전문 저작은 南宋 周天錫의 『圖經備要本草詩訣』(1294)로 추정되고 있으며³⁾, 이후 明代에 이르러 藥性歌 전문 저작이나 부분적으로 藥性歌를 인용한 저작 등이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藥性歌가 소개되었다. 明代에 출간된 藥性歌 관련 서적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嚴萃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藥性賦』와 龔廷賢의 『萬病回春』(1587), 『壽世保元』(1615) 등이 있고, 이외에 徐鳳石의 『秘傳音制本草大全藥性賦』(14-15세기?), 劉全備의 『新編註解藥性賦』(1484-1509), 陳嘉謨의 『本草蒙筌』(1565), 劉純의 『醫經小學』(1388), 李梴의 『醫學入門』(1575), 李中梓의 『醫宗必讀』(1637), 皇甫中的 『名醫指掌』(1622) 등이 藥性歌를 수재하고 있는 문헌으로 알려져 있다⁴⁾. 이처럼 의서 편찬 과정 중에 藥性歌를 수재하는 경향은 중국 뿐 아니라 한국의 여러 의서들 중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東醫寶鑑』 편찬 이후 등장한 『濟衆新編』(1799), 『醫方撮要』(1906) 등의 관찬 의서와 『舟村新方』(1662?, 1687?), 『醫門寶鑑』(1784), 『醫宗損益』(1867), 『方藥合編』(1884), 『醫鑑重磨』(1923) 등 상당수의 사찬 의서들이 藥性歌로써 本草 관련 내용을 대체하여 本草 관련 지식의 전달에 藥性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 이와 같은 전통이

한국에서도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의서 중에 기재되어 있는 藥性歌와 관련하여서는 미키 사카에(三木榮, 1903-1992)는 『醫宗損益』 藥性歌의 기재 방식, 本草의 분류 및 예문을 기재하며 “藥性歌를 활용한 醫家の 本草學이 여기서 大成하였다⁵⁾”, “『藥性歌本草學』은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특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다⁶⁾”라고 서술하면서 동시에 “조선 후기 의학의 보조적 역할을 겨우 담당하는 簡易便宜적인 본초학이 등장하였다⁷⁾”라고 서술하는 다소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三木榮의 서술 이후 관련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않아 그의 주장대로 ‘藥性歌本草學’이 조선 후기 본초학의 대표적 특징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또는 조선 후기 본초학의 전개 양상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藥性歌를 수록하고 있는 조선 의서들을 중심으로 개별 藥性歌의 유래와 차이점을 밝히는 한편 조선 의서 수재 藥性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그 본초학적 의의를 밝히고 더불어 三木榮이 지적한 조선 후기 본초학의 특징인 ‘藥性歌本草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II. 本論

1. 藥性歌의 전범이 된 龔廷賢의 『雲林歌括』⁸⁾

龔廷賢(1522-1619, 字 子材, 號 雲林)은 明代 의가로 太醫院 醫官이었던 아버지 龔信(?-?, 字 瑞芝, 號 西園)과 함께 뛰어난 의술로 중국 뿐 아니라 조선, 일본 등에 까지 명성을 날렸으며 관직은 太醫院 吏目에 달하였고 ‘醫林壯元’으로 칭송 받기도 하였다⁹⁾. 저서로는 『種杏

5)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家. 1963. p.358.

6)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家. 1963. p.359.

7)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家. 1963. p.358.

8) 龔廷賢은 『壽世保元』에서 藥性歌括로 藥性歌의 제목을 삼고 있으나 뒷부분에서는 자신의 藥性歌를 雲林歌括이라 다시 칭하고 있다(李世華, 王育學 주편, 龔廷賢 저. 壽世保元. 龔廷賢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01, 512).

9) 李世華, 王育學 주편, 龔廷賢 저. 壽世保元. 龔廷賢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1407-1409.

1) 紀征瀚. 古本草歌賦의 文獻研究. 中國中醫研究院 석사학위 논문. 2005. p.9.

2) 박경남. 맹용재. 欄江賦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1992. 13(1). p.66.

『中國醫籍通考』에는 胡仕可의 『本草歌括』 서문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 “思欲使于小學, 擇其見于用者, 自博而爲依. 按本文藥韻成類, 庶幾讀者易記, 亦可知其大略(嚴世芸 편. 中國醫籍通考. 서울. 의성당. 1993, p.1318).”이라고 하여 노랫말을 활용하여 藥性歌를 만든 목적과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3) 鄭金生. 圖經備要本草詩訣校後記. 海外回歸中醫善本古籍叢書 9.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p.107(紀征瀚. 古本草歌賦의 文獻研究. 中國中醫研究院 석사학위 논문. 2005. pp.17-18에서 재인용).

4) 紀征瀚. 古本草歌賦의 文獻研究. 中國中醫研究院 석사학위 논문. 2005. pp.19-20.

仙方』(1581), 『萬病回春』(1581), 『壽世保元』(1615) 등이 있는데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에는 藥性歌, 『雲林歌括』에는 湯頭歌, 『壽世保元』, 『濟世全書』에는 脈法歌 등이 실려 있어 실천 임상가로서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추려 후학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¹⁰⁾. 그 중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에 각각 240首, 400首¹¹⁾씩 수록되어 있는 藥性歌, 즉 『雲林歌括』은 龔廷賢의 임상가로서의 명성과 『萬病回春』, 『壽世保元』의 인기¹²⁾, 임상 실천에 적합하도록 변형된 문장, 그리고 해당 本草의 炮制·七情·禁忌·別名 등을 아우르는 주석 등으로 말미암아 진술한 四性 『藥性賦』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가장 널리 보급된 藥性歌로 알려져 있다¹³⁾. 조선 의서인 『舟村新方』, 『濟衆新編』, 『醫宗損益』, 『東武遺稿』, 『醫鑑重磨』 등에서도 『雲林歌括』을 주로 인용하여 藥性歌를 기재하고 있으며 조선 조에는 그의 藥性歌가 별도로 관각되어 간행되기도 하였다¹⁴⁾.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에 수록된 龔廷賢의 藥性歌는 모두 네 글자, 네 구절로 된 본 문장에 이어 사용 부위, 제법, 주의 사항 등과 관련된 부가 설명을 주석으로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龔廷賢은 『萬病回春』의 凡例 중에서 “藥性을 거듭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번잡할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많은 것이다. 나는 번잡하고 거친 것을 깎아내고 그 精華만을 취해 노래로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한번 보면 寒熱溫涼과

치료, 포제의 법칙이 쟁기질하듯 모두 드러나게 함으로써 어떤 병에 어떤 약을 위주로 할 것인지와 병에 임하여 약을 사용함에 있어 主藥과 佐藥, 완하게 써야 할 것과 급하게 쓸 것, 많고 적음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¹⁵⁾”라고 하여 임상 활용을 위한 간략함을 위주로 藥性歌를 편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표 1 『蒼生司命』과 『萬病回春』의 藥性歌 비교

본초명	출처	약성가
人參	蒼生司命	人參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榮養衛 <small>肺熱並陰虛火動者禁用.</small>
	萬病回春	人參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榮養衛 <small>肺中實熱 並陰虛火動 勞嗽吐血 勿用. 肺虛氣短 少氣虛喘煩熱 去蘆用之. 反藜蘆.</small>
黃芪	蒼生司命	黃芪性溫 斂汗固表 托裏生肌 氣虛莫少 <small>得防風其功愈大.</small>
	萬病回春	黃芪性溫 收汗固表 托瘡生肌 氣虛莫少 <small>得防風其功愈大 用綿紙蘸幹者 以蜜水浸 炒用之.</small>

* 『蒼生司命』은 中華醫典編委會, 中華醫典,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萬病回春』은 李世華, 王育學 주편, 龔廷賢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에서 인용함.

그러나 龔廷賢의 藥性歌 편찬과 관련하여 紀征瀚(2005)은 『萬病回春』 중의 藥性歌와 虞搏(1438-1517)의 『蒼生司命』(1515)에 기재되어 있는 240首 藥性歌를 비교하여 볼 때 肉豆蔻가 추가되고 百部가 빠져 있는 점, 炮制·七情·禁忌·別名 등의 내용이 많아진 점 등을 제외하고 本草의 배열 순서, 글자, 押韻 등이 기본적으로 『蒼生司命』과 일치하므로 1581년에 편찬된 『萬病回春』의 藥性歌는 1515년에 편찬된 『蒼生司命』의 藥性歌를 토대로 일부 내용에 대한 변형만을 꾀한 것일 뿐 龔廷賢의 창작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¹⁶⁾. 즉 龔廷賢의 명성과 『萬病回春』의 확산으로 인해 『萬病回春』에 실려있는 藥性歌가 마치 龔廷賢의 저작인 것처럼 왜곡되어 전승되었지만 『壽世保元』 藥性歌 중 『蒼生司命』과 겹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만이 龔廷賢의 저작으로 볼 수 있고 가장 많이 사람들

10) 李世華, 王育學 주편. 龔廷賢 著. 壽世保元. 龔廷賢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429.
11) 현재 전해지고 있는 『壽世保元』 중에는 400首가 아닌 393首의 藥性歌가 수록되어 있다(李世華, 王育學 주편. 龔廷賢 著. 壽世保元. 龔廷賢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501-512).
12) 『萬病回春』은 30-40종의 刊本이 있으며 明 萬曆년간에 관각 간행된 이래 康熙, 道光, 同治 년간에도 관각 간행되었으며 근현대에도 여러 개의 刊本이 존재한다. 『壽世保元』은 80여개의 刊本이 존재하며 明代에 간행된 이래 康熙, 乾隆, 嘉慶, 道光, 咸豐, 同治, 光緒, 宣統 년간 뿐 아니라 근현대에도 관각되고 간행되었다(李世華, 王育學 주편. 龔廷賢 著. 壽世保元. 龔廷賢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429).
13) 紀征瀚. 古本草歌賦의 文獻研究. 中國中醫研究院 석사학위 논문. 2005. p.20, 40.
14) 李世華, 王育學 주편. 龔廷賢 著. 壽世保元. 龔廷賢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414.

15) 李世華, 王育學 주편. 龔廷賢 著. 壽世保元. 龔廷賢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16. “一藥性層見疊出, 非病于繁, 卽涉于泛, 余故刪其繁蕪, 撮其精華, 綴成一歌, 使人一見寒熱溫涼, 治療炮製之法, 犁然畢見. 某病以某藥主, 使臨病用藥, 知有主佐緩急多寡之殊.”
16) 龔廷賢의 藥性歌의 고증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논의는 紀征瀚. 古本草歌賦의 文獻研究. 中國中醫研究院 석사학위 논문. 2005. pp.83-85 참조.

입에 오르내리던 240首의 藥性歌는 虞搏의 저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표 1에서와 같이 『蒼生司命』과 『萬病回春』의 藥性歌는 주석 부분에서는 다소 출입이 보이지만 4인 4구의 문장 간에는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외에 龔廷賢은 『壽世保元』의 凡例 중에서 “藥性은 내가 지은 『回春』에 이미 240首가 있었지만 이번 400首로 증보하여 四韻을 편성하고 그 아래 製法을 적어 후학들에게 제시한다. 모두가 상용하는 약으로 일상적인 병증에 사용함에 충분할 것이다. 그 나머지 괴이한 약들은 사용하는 경우도 적고 모두 갖추어 놓을 수 없어 제외하였다¹⁷⁾.”라고 하여 『壽世保元』 藥性歌의 구성과 추가 내용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고 있다. 특히 추가된 160首(실제 153首)의 藥性歌 중에는 蕪荑, 雷丸, 蒼耳子 등과 같은 약용 本草 이외에도 馬肉, 牛肉, 鯉魚, 鯽魚, 螃蟹, 綠豆, 大棗, 柿子, 陳倉穀米 등과 같은 식용 本草 등도 다수 포함되어 本草 활용의 범위가 보다 다양해졌음을 확인시켜 준다.

표 2 『萬病回春』과 『壽世保元』 藥性歌 중의 주석 내용 비교

본초명	출처	약성가
麥門冬	萬病回春	麥門甘寒 解渴祛煩 補心清肺 有熱自安 <small>溫水漬, 去心用, 不令人心煩.</small>
	壽世保元	麥門甘寒 解渴祛煩 補心清肺 有熱自安 <small>水浸, 去心用, 不令人煩.</small>
人參	萬病回春	人參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榮養衛 <small>肺中實熱, 並除虛火動, 勞嗽吐血, 勿用肺虛氣短, 少氣虛喘煩熱, 去蘆用之, 反藜蘆.</small>
	壽世保元	人參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榮養衛 <small>去蘆用, 反藜蘆.</small>
薄荷	萬病回春	薄荷味辛 最清頭目 祛風化痰 骨蒸宜服
	壽世保元	薄荷味辛 最清頭目 祛風化痰 骨蒸宜服 <small>一名雞蘇, 用枯蘆煎藥者佳, 辛香通散而散風熱.</small>

* 『壽世保元』은 李世華, 王育學 주편, 龔廷賢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에서 인용함. 이하 동일함.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의 藥性歌를 비교해보면 새로운 藥性歌의 추가 이외에도 주석, 性味, 本草 효능, 배열 순서 등의 부분에서 기존 藥性歌가 상당 부분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주석의 경우 표 2의 예에서와 같이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의 기재 내용이 거의 동일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 쪽의 내용이 많거나 적은 차이를 지니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萬病回春』에서는 240개 藥性歌 중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100여개의 藥性歌에 주석을 첨부하고 있고 기재 내용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간단한 반면에, 『壽世保元』에서는 3분의 2에 달하는 400개 藥性歌 중 270여개에서 주석을 첨부하고 있으며 주석 중의 기재 내용 역시 보다 풍부해져 있어 龔廷賢이 藥性歌의 가짓수 증대 뿐 아니라 개별 本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술을 통해 상세한 本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의 藥性歌 중의 性味 및 효능 기재 비교

본초명	출처	약성가
靑黛	萬病回春	靑黛酸寒 能平肝木 驚癇疳痢 兼除熱毒
	壽世保元	靑黛鹹寒 能平肝木 驚癇疳痢 兼除熱毒 <small>即破花.</small>
兔絲子	萬病回春	菟絲甘溫 夢遺滑精 腰膝膝冷 添髓強精 <small>水淘淨用, 同入砂罐內煮爛, 作成餅, 配入諸藥用.</small>
	壽世保元	菟絲甘平 夢遺滑精 腰膝膝冷 添髓壯筋 <small>水洗淨, 熟酒砂罐炒燥, 搗碎曬乾, 合藥可磨末爲丸, 不須作餅.</small>
大黃	萬病回春	大黃苦寒 破血消瘀 快腸通腸 破除積聚 <small>酒炒上趁爛頭, 酒洗中至胃院, 生用下行.</small>
	壽世保元	大黃苦寒 實熱積聚 鑷痰潤燥 疏通便閉
牛膝	萬病回春	牛膝味苦 除濕痹痿 腰膝酸痛 益陰補髓 <small>去蘆, 酒洗用.</small>
	壽世保元	牛膝味苦 除濕痹痿 腰膝酸痛 小便淋瀝 <small>懷慶者佳, 去蘆, 酒洗.</small>

또한 『壽世保元』 藥性歌는 『萬病回春』과 내용과 형식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本草의 性味, 효능에 대해 아래 표 3에서처럼 수정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藥性歌 배열 순서를 변경하거나, 약명을 변경하거나, 오자를 개정하거나, 押韻을 위한 글자를 수정하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 『萬病回春』과의 차별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壽世保元』의 藥性歌야말로 기존의 것을 토대로 龔廷賢 자신의 本草 지식 및 임상 경험을 활용하여 번잡한 것을 축약하고 요점을 추려 분명히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줄이고 깎아낸 龔廷賢의 저작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¹⁸⁾.

17) 李世華, 王育學 주편, 龔廷賢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71. “一藥性, 予集回春已有二百四十味, 今增補共四百味, 編成四韻, 下注制法, 以示後學. 此皆常用之藥, 足給常病之用. 其餘古怪冷藥, 用之者少, 不能全具, 故缺之.”

2. 조선 관찬 의서 중의 藥性歌, 『濟衆新編』과 『醫方撮要』

1) 『濟衆新編』의 편찬과 藥性歌

『濟衆新編』은 조선 정조 년간에 內醫院 首醫로 활동 하였던 강명길(康命吉, 1737-1800, 字 君錫)이 정조의 명을 받아 편찬한 관찬 의서로¹⁹⁾ 세종 년간에 편찬된 『醫方類聚』와 『鄉藥集成方』, 광해군 년간에 편찬된 『東醫實鑑』, 그리고 고종 년간에 편찬된 『醫方撮要』와 함께 조선조 관찬 의서의 명맥을 잇고 있다. 특히 『濟衆新編』은 문장이 번거롭고 뜻이 중복되며 소홀히 다뤄거나 빠뜨린 부분이 많았던 『東醫實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편찬된 의서로 內醫院에서 여러 처방 들을 채집하되 번잡스러운 것은 제거하고 요점만을 취하되 먼저 脈狀, 形症을 서술한 다음 적절한 方藥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편찬되었다²⁰⁾.

강명길은 증조부 강여태(康汝泰, 1646-1714, 字 亨叔)와 조부 강천구(康天衢, 1668-1753, 字 爾則)가 內醫, 아버지 강덕령(康德齡, 1691-1762, 字 得甫)이 惠民署主簿로 활동하였던 世醫로 1766년(영조 44년) 戊子 式年 醫科에서 장원을 차지하여²¹⁾ 內醫院에 들어간

이래 內醫院首醫로 활약하며 1799년(정조 23년)에 『濟衆新編』 八卷을 편찬하였고 관직이 崇祿大夫行知 中樞府事에까지 이르렀으나 정조가 위독해지자 侍醫로서 치료를 담당하다가 1800년 정조가 죽자 뒤이어 사망하였다²²⁾.

『濟衆新編』에는 조선조 관찬 의서 중 처음으로 藥性歌를 수재하고 있는데, 이는 『濟衆新編』 편찬과 관련된 정조의 교지, 『濟衆新編』의 발문, 그리고 범례 등에서 반복하여 강조하였던 번거로움을 간추리고 요점을 취한다(芟繁取要)는 편찬 목적에 부응할 뿐 아니라²³⁾ 당대에 이미 확산되어 있었던 단방약에 대한 관심, 藥市市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전국적인 약재 유통, 민간 의료 인력의 확산 등 18세기 들어 변화해가는 조선의 의약 관련 현황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⁴⁾.



그림 1 『濟衆新編』 藥性歌

2) 『濟衆新編』 藥性歌의 『萬病回春』, 『壽世保元』 인용

『濟衆新編』 凡例 중에서 “藥性에 대해 주석을 달고 풀이한 方書들이 비록 많지만 모두 장황하고 번거로움을 면치 못하여 단지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의 歌括만을 취하고 새롭게 83首의 藥性歌를 추가한다²⁵⁾”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濟衆新編』 藥性歌는 龔廷賢의 『雲林歌括』 400首 중에서 303首를 취하고 새로이 83首를 추가하여 총 386首로 이루어져 있다.

18) 紀征瀚. 古本草歌賦의 文獻研究. 中國中醫研究院 석사학위논문. 2005. p.84.
龔廷賢은 『壽世保元』의 끝부분에서 “雲林歌括, 可以訓蒙, 略陳梗概, 以候明公, 再加研削, 濟世無窮(李世華, 王育學 주편. 龔廷賢 著. 壽世保元. 龔廷賢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12).”이라고 하여 자신이 직접 『壽世保元』 藥性歌를 편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19) 김신근 편. 강명길 저. 한국의학대계 18 濟衆新編(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628. “敎曰, 予以大朝久在 靜攝之中, 侍湯之暇, 汎濫醫書, 有以知術, 莫仁於醫, 而司 民命者, 尤不可不致意焉. 我朝醫書, 惟許浚寶鑑雖稱詳悉, 然文或繁冗, 語或重疊, 證或闕漏, 而應用之方, 亦多有不 錄者. 內經不云乎, 知其要者, 一言而終, 不知其要者, 流散 無窮, 汝其廣取諸方, 芟其繁而取其要, 別作一方書以進.”
20) 조선왕조실록 : 정조 23년 12월 11일 [Internet] 2009 [cited 2009 July 10].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 “本朝醫書, 惟許浚寶鑑, 最稱詳核, 然文煩 意疊, 疎漏亦多. 上, 就加槩括, 發凡起例, 撰成壽民妙詮九 卷, 復命內醫院, 博採諸方, 芟繁取要, 間附經驗之方, 另編 一部可行之書… 每一目先敘脈訣形症, 次附合用方藥.”
21)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 康命吉 과거 및 취재 [Internet] 2009 [cited 2009 July 9]. Available from: http://people.aks.ac.kr/index.jsp, 조선잡과방목 : 康命吉 [Internet] 2009 [cited 2009 July 9]. Available from: http://www.koreaa2z.com/2002003/

22)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家. 1963. p.239. 康命吉의 가계 및 생애와 관련하여서는 안상우. 濟衆新編 해제. DIGITAL 濟衆新編 해설.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3. pp.13-14 참조.
23) 김신근 편. 강명길 저. 한국의학대계 18 濟衆新編(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8. “藥性註解者, 方書雖多, 皆未 免浩繁, 只抄萬病回春, 壽世保元歌括, 又附新增八十三首.”
24) 숙종 대에서 정조 대까지 이르는 조선 민간 의료 현황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김대원. 18세기 민간의료의 성장. 한국사론. 39. 1998. pp.187-238에서 자세히 분석되고 있다.
25) 김신근 편. 강명길 저. 한국의학대계 18 濟衆新編(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8. “藥性註解者, 方書雖多, 皆未 免浩繁, 只抄萬病回春, 壽世保元歌括, 又附新增八十三首.”

표 4 『萬病回春』, 『壽世保元』, 『濟衆新編』 藥性歌 배열 순서 비교

출처	本草 배열
萬病回春	人參 黃芪 白朮 茯苓 … 石膏 知母 貝母 … 細辛 羌活 獨活 白芷 藜蘆 香附 … 人乳, 童便, 生薑
壽世保元	人參 黃芪 白朮 茯苓 … 細辛 羌活 獨活 知母 白芷 藜蘆 香附 … 雀卵 … 鴨肉 … 白鵝肉, 雀卵 人乳, 童便, 生薑
濟衆新編	人參 黃芪 白朮 茯苓 … 石膏 滑石 知母 貝母 … 細辛 羌活 獨活 白芷 藜蘆 香附 … 人乳, 童便, 生薑, … 白鵝肉, 鴨肉, 雀卵

그 형식 역시 『雲林歌括』과 동일하게 4인 4구의 藥性歌에 주석을 덧붙이고 있지만 주석 부분에서는 『雲林歌括』과 달리 藥名, 채취 방법, 법제 방법 등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濟衆新編』 藥性歌 중에는 『萬病回春』, 『壽世保元』이 모두 인용되고 있지만 藥性歌의 구분 배치, 배열 순서, 주석의 인용 내용 등을 참고할 때 『壽世保元』보다 『萬病回春』을 위주로 편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濟衆新編』 藥性歌 중의 전반부 240여首는 대부분 『萬病回春』을 인용하고 있는 반면 『萬病回春』 藥性歌가 종료되는 人乳, 童便, 生薑 이후부터 烏賊魚, 魴魚 등으로 이어지는 新增 藥性歌 사이의 60여首 藥性歌는 『壽世保元』을 인용하고 있다. 배열 순서의 경우 표 4에서와 같이 『萬病回春』 藥性歌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 하는 人乳, 童便, 生薑까지 중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萬病回春』과 동일한 배열 순서를 취하고 있지만 이후 『壽世保元』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壽世保元』의 배열 순서를 따르지 않고 나름의 순서로 배열하고 있어 『濟衆新編』이 『萬病回春』 藥性歌 배열 순서를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표 5에서 처럼 藥性歌 본문 후반에 위치한 주석 문장을 선택할 때도 역시 『壽世保元』 보다는 『萬病回春』을 선택한다.

이처럼 『濟衆新編』 藥性歌가 『萬病回春』을 위주로 편찬되어 있기는 하지만 『壽世保元』 역시 참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性味를 기재할 때 靑黛는 『萬病回春』을, 菟絲子는 『壽世保元』을 인용하고 있고, 효능을 기재할 때 大黃은 『萬病回春』을, 茯神은 『壽世保元』을 인용하고 있다(표 6). 藥性歌 기술과 관련하여 『濟衆新編』 중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萬病回春』 또는 『壽世保元』의 내용을 선택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 저자인 강명

길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없지만, 『經驗方』, 『新增醫論』, 『新增處方』 등을 추가하여 자신의 실친 임상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濟衆新編』의 전반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아마도 자신의 의료 경험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26).

표 5 『萬病回春』, 『壽世保元』, 『濟衆新編』 藥性歌 주석 내용 비교 (1)

본초명	출처	약성기
萬病回春	人參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榮養衛	肺中實熱, 並陰虛火動, 勞嗽吐血, 勿用肺虛氣短, 少氣虛喘煩熱, 去蘆用之, 反藜蘆.
人參	壽世保元	人參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榮養衛 去蘆用, 反藜蘆.
濟衆新編	人參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榮養衛	肺中實熱, 並陰虛火動, 勞嗽吐血, 勿用肺虛氣短, 少氣虛喘煩熱, 去蘆用之, 反藜蘆, 忌鐵.
萬病回春	黃芪性溫 收汗固表 托瘡生肌 氣虛莫少	得防風, 其功愈大, 用縮散煎者, 以蜜水浸, 炒用之.
黃芪	壽世保元	黃芪性溫 收汗固表 托瘡生肌 氣虛莫少 縮散如前煎者, 瘡癰生用, 補虛蜜水炒用.
濟衆新編	黃芪性溫 收汗固表 托瘡生肌 氣虛莫少	단너슴불회 得防風, 其功愈大, 用縮散煎者, 以蜜水浸, 炒用之.

표 6 『萬病回春』, 『壽世保元』, 『濟衆新編』 藥性歌의 性味 및 효능 기재 비교

본초명	출처	약성기
萬病回春	靑黛酸寒 能平肝木 驚癇疳痢 兼除熱毒	
靑黛	壽世保元	靑黛鹹寒 能平肝木 驚癇疳痢 兼除熱毒 即旋花
濟衆新編	靑黛酸寒 能平肝木 驚癇疳痢 兼除熱毒	
萬病回春	菟絲甘溫 夢遺滑精 腰疼膝冷 添髓強精	水淘淨用 同人砂罐內蒸爛 作成餅 配入諸藥用
菟絲子	壽世保元	菟絲甘平 夢遺滑精 腰疼膝冷 添髓壯筋 水洗淨 熱酒砂罐內蒸爛 搗碎曬乾 合藥同煎末爲丸 不燥作湯
濟衆新編	菟絲甘平 夢遺滑精 腰疼膝冷 添髓壯筋	세삼외 水淘淨用 酒同人 砂罐內蒸爛 搗成餅曬 入丸藥用
萬病回春	大黃苦寒 破血消瘀 快膈通腸 破除積聚	酒炒上達竈頭, 酒洗中至胃脘, 生用下行.
大黃	壽世保元	大黃苦寒 實熱積聚 鑷痰潤燥 疏通便閉
濟衆新編	大黃苦寒 破血消瘀 快膈通腸 破除積聚	장군용 酒炒上達竈頭, 酒洗中至胃脘, 生用下行.
萬病回春	茯神痛心 善鎮驚悸 恍惚健忘 兼除怒志	去皮木.
茯神	壽世保元	茯神補心 善鎮驚悸 恍惚健忘 兼除怒志 去皮木.
濟衆新編	茯神補心 善鎮驚悸 恍惚健忘 兼除怒志	去皮木.

26) 지창영, 김남일, 『濟衆新編』을 통해 살펴본 강명길의 의학사상. 경희한의대논문집. 21(1). 1998. p.104.

3) 『濟衆新編』 藥性歌와 『萬病回春』, 『壽世保元』 藥性歌의 차이

비록 『濟衆新編』의 藥性歌가 『萬病回春』과 『壽世保元』 藥性歌 즉 『雲林歌括』을 위주로 편성되어있기는 하지만 이를 맹목적으로 추존하여 전제한 것은 아니고 상당 부분에서 자신의 의견을 추가 기재함으로써 나름의 독창성을 확보하고 있다. 『濟衆新編』 藥性歌와 『雲林歌括』이 구별되는 본초학적 성과로는 첫째, 鄉藥과 唐藥의 구별 및 鄉藥名의 기재, 둘째 새로운 藥性歌의 구성, 셋째 주석을 통한 보다 자세한 本草 관련 정보 기술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濟衆新編』 藥性歌는 本草名 위쪽에 ‘唐’이라고 표기하여 鄉藥과 수입 약재를 구분하고 있다. 이는 『東醫寶鑑』에서 唐藥과 鄉藥을 구분하였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당대의 약물 수급 실정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²⁷⁾. 그리고 藥性歌 하단에는 두 줄로 간단하게 해당 本草와 관련된 주석을 기재하면서 동시에 鄉藥名을 기재하고 있는데 『雲林歌括』에서 인용한 303首 중에서는 197首, 새로 추가한 83首 중에서는 78首의 藥性歌에 鄉藥名이 추가되어 있다. 이와 같은 鄉藥名의 기재는 멀리 외딴 시골에 사는 백성들까지도 한번 책을 보기만 하면 환히 알게끔 하려고 했던 『濟衆新編』의 편찬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며 또한 새로 추가한(新增) 藥性歌 중에서 鄉藥名 기재 비율이 높은 것도 이런 의도를 잘 보여준다²⁸⁾.

표 7 『萬病回春』, 『壽世保元』, 『濟衆新編』 藥性歌 주석 내용 비교 (2)

본초명	출처	주석
	萬病回春	-
龍甲	壽世保元	去裙 醃醃炙黃
	濟衆新編	저라동결질 肉冷甘 主熱氣 濕痺 婦人帶下 益氣 補不足 然不可久食
	萬病回春	火殿 左顧者佳
牡蠣	壽世保元	左顧大者佳 火殿紅 研
	濟衆新編	굴조개 火殿 左顧者佳 肉即石花 食之有益 令人細肌膚 美顏色

27) 『東醫寶鑑』의 唐藥과 鄉藥 구분 방식은 김호. 허준의 동의 보감 연구. 서울. 일지사. 2003. p.230 참조.

28) 조선왕조실록 : 경조 23년 12월 11일 [Internet] 2009 [cited 2009 July 10]. Available from : <http://sillok.history.go.kr/> “使選鄉窮鄙之民, 一開卷瞭然.”

두 번째로 『濟衆新編』은 『雲林歌括』 400首 중에서 303首는 선택하고 나머지 97首는 배제하고 있으며 83首의 藥性歌는 새롭게 추가 기재하고 있다. 일부 藥性歌의 배제는 아마도 “번거러움을 간추리고 요점을 취하여(芟繁取要)” 외딴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의약 지식을 전파하려는 『濟衆新編』의 편찬 목적과 실천 임상에 중점을 둔 『濟衆新編』의 특성, 그리고 당대 일반 민중들의 단방약 활용도를 감안할 때 本草 습득의 쉽고 어려움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⁹⁾. 특히 새로 추가된 83首의 藥性歌가 비록 『本草分類』 가장 끝에 ‘食治門’를 배치한 『醫學入門』의 체례와 유사하여 그 중에 烏賊魚, 海蔘, 小麥, 大豆 등과 같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물고기, 곡식, 과일 등의 음식물이 다수 삽입되어있는 것, 藥性歌의 내용은 鄉藥名을 기재하고 있는 조선 의서인 『東醫寶鑑』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 그리고 唐藥이 荔枝 하나 뿐인 것 등은 이를 분명하게 증명해준다³⁰⁾.

세 번째로 『濟衆新編』 藥性歌의 주석 중에는 『雲林歌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대개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濟衆新編』 藥性歌의 주석은 『萬病回春』 또는 『壽世保元』 藥性歌의 주석을 그대로 전제하고 있지만 표 7에서처럼 일부 藥性歌의 경우에는 해당 本草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있다.

(4) 『濟衆新編』 新增 藥性歌

『濟衆新編』 藥性歌 후반부에 새롭게 추가된 83首의 藥性歌는 기존의 藥性歌와 동일하게 4언 4구의 문장에 주석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내용은

29) 지창영(2003)은 『濟衆新編』의 처방 선택 기준 중의 하나로 구성 약물이 실질적으로 구입하기 용이한 것인가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 그 예로 鄉藥名의 표기와 노인을 위한 新增 處方, 그리고 虛勞의 통치방인 鷄膏를 들고 있다(지창영. 濟衆新編의 의사학적 고찰.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pp.50-51).

30) 지창영. 濟衆新編의 의사학적 고찰.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p.41. 『醫學入門』 「食治門」의 앞 부분에는 “人知藥之藥人, 而不知食之藥人… 窮乏無資貨藥者, 俱宜以飲食調治.”라고 하여 민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을 통해 병을 다스릴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金媽莉, 何源, 喬占兵 교주. 李施. 醫學入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1).

주로 『東醫寶鑑』의 기술에 근거하여 편성되어 있다. 이는 新增 藥性歌의 本草 중에서 『東醫寶鑑』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몇 종 되지 않고, 藥性歌 本草의 배열 순서가 『東醫寶鑑』 「湯液編」의 本草 배열 순서와 유사하며, 그리고 藥性歌의 내용에 『東醫寶鑑』의 문장이 상당 부분 인용되어 있는 것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8 『濟衆新編』 新增 藥性歌와 『東醫寶鑑』 魚部 本草 배열 순서

출처	本草 배열
濟衆新編	烏賊魚 魴魚 鱖魚 鮫魚 鰾魚 石魚 鱈魚 鱧魚 鮎魚 比目魚 魮魚 (중략) 海菜 海帶 昆布 甘苔 鹿角菜 (중략) 李實 獼猴桃 海松子 榛子 (이하생략)
東醫寶鑑	鯉魚 鯽魚 烏賊魚 鱖魚 鰾鱧魚 鮫魚皮 鰾魚 青魚 石首魚 鱈魚 鱧魚 鮎魚 鱈魚比目魚 魮魚 (중략) 海菜 海帶 海藻 昆布 甘苔 鹿角菜 (중략) 李核仁 胡桃 獼猴桃 海松子 榛子 (이하생략)

* 『東醫寶鑑』은 김신근 편, 허준 저, 한국학대계 11-14 東醫寶鑑(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2.

구체적으로 『濟衆新編』 新增 藥性歌 83首 중 魴魚, 海參, 南瓜, 煙草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은 『東醫寶鑑』 「湯液編」이나 본문 중에 수재되어 있다. 하지만 南瓜나 煙草 등은 1600년 이후에 조선에 들어온 本草로서³¹⁾ 『濟衆新編』 藥性歌가 비록 『東醫寶鑑』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당대의 本草 활용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本草 배열의 경우 『濟衆新編』 기재 本草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표 8와 같이 『東醫寶鑑』과 배열 상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濟衆新編』 新增 藥性歌의 本草는 외딴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구하기 쉬운 물고기, 곡식, 과일 등의 음식물이 주로 배열되어 있지만 앞에서부터 차례로 ‘魚部, 蟲部, 菜部(바다 채소), 穀部, 禽部, 獸部, 果部, 菜部, 草部, 木部’ 등으로 분류할 수 있어 『東醫寶鑑』의 本草 분류 순서인 ‘水部, 土部, 穀部, 人部, 禽部, 獸部, 魚部, 蟲部, 果部, 菜部, 草部, 木部’와 유사한 배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濟衆新編』 중에 기재된 상당 수의 新增 藥性歌 문장이나

주석은 鰾魚의 예처럼 『東醫寶鑑』 중의 관련 문장에서 일부 구절을 선택적으로 인용하여 압축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南瓜, 煙草 등처럼 『東醫寶鑑』에서 찾아볼 수 없는 本草들은 『本草綱目』이나 『景岳全書』 등 후대의 本草 서적을 참고하여 藥性歌로 변환시키고 있다(표 9). 이로 미루어볼 때 『濟衆新編』의 新增 藥性歌는 『濟衆新編』의 저자인 강명길의 『東醫寶鑑』을 토대로 당대의 本草 관련 지식을 덧붙여 실제 임상 활용까지도 염두에 둔 채 새롭게 편찬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9 『濟衆新編』 新增 藥性歌의 유래

본초명	출처	약성기
濟衆新編	鰾魚甘平 下血腸風 補勞益脾 去腹小蟲	鰾魚 소가리 性平味甘 無毒 一云微毒 補勞益脾胃, 治腸風瀉血, 去腹乃小虫, 益氣力, 令人肥健 本草 (중략) 卽今鰾魚也 本草 膽 主骨鯁在喉中不下 本草
東醫寶鑑	鰾魚	鰾魚 소가리 性平味甘 無毒 一云微毒 補勞益脾胃, 治腸風瀉血, 去腹乃小虫, 益氣力, 令人肥健 本草 (중략) 卽今鰾魚也 本草 膽 主骨鯁在喉中不下 本草
濟衆新編	南瓜	南瓜甘溫 補中益氣 羊肉同食 令人氣壅 호박 多食發脚氣黃疸 同豬肉者甚良
本草綱目	南瓜	氣味 甘溫無毒 時珍曰 多食發脚氣黃疸 不可同羊肉食 令人氣壅 主治 補中益氣 時珍
濟衆新編	煙草	煙草辛熱 逐瘴治痰 寒毒風濕 殺蟲尤堪 烟味辛氣溫, 性微熱, 升也, 陽也. 燒烟吸之, 大能醉人, 用時惟吸一口或二口, 若多吸之, 令人醉倒, 久而後甦, 甚者以冷水一口解之即醒; 若見煩悶, 但用白糖解之即安, 亦奇物也. 吸時須開喉長吸嚥下, 令其直達下焦. 其氣上行則能溫心肺, 下行則能溫肝脾胃, 服後能使通身溫暖微汗, 元陽陡壯. 用以治表, 善逐一切陰邪寒毒, 山嵐瘴氣, 風濕邪閉腠理, 筋骨疼痛, 誠頃刻取效之神劑也. 用以治裏, 善壯胃氣, 進飲食, 補陰濁寒滯, 消膨脹宿食, 止嘔噦霍亂, 除積聚諸蟲, 解鬱結, 止痛痛, 行氣停血瘀, 學下陷後墜, 通達三焦, 立刻見效... 然此物性屬純陽, 善行善散, 惟陰滯者用之如神, 若陽盛氣越而多躁多火, 及氣虛短而多汗者, 皆不宜用.
景岳全書	煙草	煙草辛熱 逐瘴治痰 寒毒風濕 殺蟲尤堪 烟味辛氣溫, 性微熱, 升也, 陽也. 燒烟吸之, 大能醉人, 用時惟吸一口或二口, 若多吸之, 令人醉倒, 久而後甦, 甚者以冷水一口解之即醒; 若見煩悶, 但用白糖解之即安, 亦奇物也. 吸時須開喉長吸嚥下, 令其直達下焦. 其氣上行則能溫心肺, 下行則能溫肝脾胃, 服後能使通身溫暖微汗, 元陽陡壯. 用以治表, 善逐一切陰邪寒毒, 山嵐瘴氣, 風濕邪閉腠理, 筋骨疼痛, 誠頃刻取效之神劑也. 用以治裏, 善壯胃氣, 進飲食, 補陰濁寒滯, 消膨脹宿食, 止嘔噦霍亂, 除積聚諸蟲, 解鬱結, 止痛痛, 行氣停血瘀, 學下陷後墜, 通達三焦, 立刻見效... 然此物性屬純陽, 善行善散, 惟陰滯者用之如神, 若陽盛氣越而多躁多火, 及氣虛短而多汗者, 皆不宜用.

* 『本草綱目』은 劉銜如 교정, 李時珍 저,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景岳全書』는 李志甫 주편,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濟衆新編』 藥性歌는 당대의 민간 의료 성장이라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내용의 변잡스러움으로 인해 임상 활용도가 떨어지던 『東醫寶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 후기 관찬 의서 『濟衆新編』 本草

31) 허균의 『閑情錄』에 따르면 南瓜는 1600년대 초에 조선에 들어왔고 이규경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 따르면 煙草는 1618년 이전에 일본을 통해 조선으로 전해졌다(김중덕, 한의학에서 바라본 농산물 II. 부산, 부경대학교 한약재 개발연구소, 2006. p.64, 243).

부분 중에 과거와는 다른 歌賦 형식으로 보입되었다. 『濟衆新編』 이후에 편찬된 다수의 조선 의서들이 藥性歌를 채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濟衆新編』 藥性歌는 대중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이며 또 本草 지식 확산에 일조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그 내용상 『萬病回春』 藥性歌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지만 鄉名을 기재하고,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本草를 위주로 藥性歌를 편찬하며, 해당 本草에 대한 구체적인 새로운 주석을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은 조선 실정에 적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후반부에 추가된 新增 藥性歌는 『東醫寶鑑』이 이룩한 본초학적 성과를 토대로 하여 조선에 새롭게 들어온 本草와 또 주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鄉藥本草 등을 중심으로 강명길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5) 『醫方撮要』의 편찬과 藥性歌

『醫方撮要』는 고종이 기존의 의서 중에 번거로운 것을 제거하고 긴요한 것만을 취해 모든 사람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의서를 편찬하라는 명을 내림에 따라 1906년 『東醫寶鑑』에 근간을 두고 편찬된 조선 최후의 관한 의서이다³²⁾. 편찬자인 이준규(李峻奎, 1852-1918)는 조선 고종 때의 典醫로서 1899년 廣濟院長, 1905년 조선의원원장 등을 지냈으며 1909년 10월에는 大韓醫士總公所 감속소장으로 추대되기도 하였다³³⁾.

총 111조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醫方撮要』 중에는 ‘本草’라는 항목이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4언 4구로 이루어진 총 221首의

藥性歌가 수재되어 있다. 하지만 『醫方撮要』 藥性歌는 『雲林歌括』이나 『濟衆新編』 등과 달리 4언 4구의 본문장만 존재하고 어떤 주석도 기술되어 있지 않아 형식상 기존 藥性歌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일부 글자를 수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인 배열 순서나 인용 문장 등이 『壽世保元』과 거의 동일하고 『萬病回春』과 『濟衆新編』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壽世保元』 중에는 수재되어 있는 旱蓮草, 海桐皮, 側柏葉 등에 대한 藥性歌가 기재되어 있어 『壽世保元』을 중심으로 藥性歌를 편찬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덧붙여 ‘本草’ 항목의 가장 뒤편에는 ‘藥共四百’과 ‘藥共數百’의 구절만 다를 뿐 나머지는 『壽世保元』과 동일한 문장이 짧게 기술되어 있어 『醫方撮要』의 藥性歌가 특별한 본초학적 성과 없이 『壽世保元』을 위주로 편찬되었음을 확인시켜 준다³⁴⁾.

3. 황도연 의서 중의 藥性歌, 『醫宗損益』, 『方藥合編』

1) 『醫宗損益』 「附餘」의 편찬과 藥性歌

『醫宗損益』은 조선 말기에 한의사로 활동하였던 황도연(黃度淵, 1807-1884, 號 惠庵)이 1867년(고종 4년)에 편찬한 의학 저작으로 그의 생애와 관련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철종 때부터 고종 초기까지 서울 무교동에서 ‘贊化堂’이라는 藥局을 개설하여 임상의로서 명성을 떨쳤고 고종 연간에는 典醫監 都正(正3品)의 관직을 받았다고 한다³⁵⁾. 저서로는 『醫宗損益』 외에

32)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 醫方撮要 序 [Internet] 2009 [cited 2009 September 10]. Available from : <http://jisik.kiom.re.kr/> “我太宗陛下, 以好生之至仁, 念濟衆之斯善, 命侍郎另撰一書, 必須W該而不煩, 簡而易攻, 侍郎以十數年所研究, 徵之已試, 而質之無疑者, 撰次以成籤, 曰醫方撮要.” “惟我皇上陛下, 用是之憂思, 欲於群書中, 刪煩取簡, 去冗得繁撮, 其最切於對證投劑者而哀輯之, 使賢愚皆得而易於爲用也.”

33) 유희영, 신민교, 맹웅재. 한국의약인명사전. 서울. 의성당. 1991. p.82.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 동의보감으로 읽는 한의학의 역사(13) [Internet] 2009 [cited 2009 September 10]. Available from : <http://www.dongui400.or.kr/>, 김기욱 외. 한의학통사.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466.

34) 『壽世保元』 중에는 “藥共四百, 精制不同, 生熟新久, 炮煨炙烘, 湯丸膏散, 各起疲癘. 合宜而用, 乃是良工. 雲林歌括, 可以訓蒙, 略陳梗概, 以候明公, 再加斫削, 濟世無窮.” (李世華, 王育學, 龔廷賢醫學學術思想研究, 龔廷賢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512.) 이라고 실려 있는데 반해 『醫方撮要』 중에는 “藥共數百, 精制不同, 生熟新久, 炮煨炙烘, 湯丸膏散, 各起疲癘. 合宜而用, 乃是良工. 雲林歌括, 可以訓蒙, 略陳梗概, 以候明公, 再加斫削, 濟世無窮.”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 醫方撮要 [Internet] 2009 [cited 2009 September 10]. Available from: <http://jisik.kiom.re.kr/>) 이라고 실려 있다.

35) 남산당편집국 편. 황도연 저. 對譯 證脈方藥合編. 서울. 남산당. 1983. p.4. 1866년(고종 3년)에 반포된 『大典會通』 중의 典醫監 관제에는 ‘都正’이 아닌 ‘正’으로 표기되어 있다(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家. 1963. p.253).

표 10 『本草綱目』과 『醫宗損益』「附餘」의 本草 分類 比較

『本草綱目』		『醫宗損益』「附餘」
대분류	소분류	소분류
水部 天水類13 地水類30		山草43 芳草33 濕草49 毒草20 蔓草31 水草10 石草2 苔草1
火部 11		香木28 喬木20 灌木20 寓木5 苞木5
土部 61		葷辛菜16 柔滑菜10 蔬菜4 芝朮2
金石部 金類28 玉類14 石類上32 石類下40 鹵石類20 附錄27		五果6 山果17 夷果5 味果0 蔬果7 水果3
草部 山草類上31 山草類下39 芳草類56 濕草類上53 濕草類下73 毒草類47 蔓草類73 附錄 19 水草類23 石草類19 苔草類16 雜草類16 有名未用153		麻麥稻9 稷粟8 菽豆4 造釀9
穀部 麻麥稻類12 稷粟類18 菽豆類14 造釀類14		卵蟲10 化蟲4
菜部 葷辛類32 柔滑類41 蔬菜類11 水菜類6 芝朮類15		龍4 蛇2 魚13 無鱗魚19
果部 五果類11 山果類34 夷果類31 味類13 蔬類9 水果類6 附錄23		龜鱉5 蚌蛤12
木部 香木類35 喬木類52 灌木類51 寓木類12 苞木類4 雜木類7 附錄19		水禽8 原禽8 林禽3
服器部 服帛類25 器物類54		畜9 獸11 鼠2
蟲部 卵生類上23 卵生類下22 化生類31 濕生類23 附錄7		人6
鱗部 龍類9 蛇類17 魚類31 無鱗魚類28 附錄9		水1
介部 龜鱉類17 蚌蛤類29		土2
禽部 水禽類23 原禽類23 林禽類17 山禽類13 附錄1		金石34
獸部 畜類28 獸類38 鼠類12 寓類, 怪類共8		
人部 凡37		

* 『醫宗損益』「附餘」에는 대분류 항목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本草綱目』의 예를 따랐음.

『本草附方便覽』, 『醫方活套』, 『方藥合編』이 있으며 그 중 『方藥合編』은 黃度淵이 편찬 도중 사망하자 그의 아들 황필수(黃泌秀, 1842-1914, 號 慎村, 慎村子)가 부친의 유지를 이어 편찬, 간행하였다³⁶⁾.

황도연은 『醫宗損益』 「自叙」에서 “과거에 의약을 행했던 것들이 처음에는 당시의 세태에 적절하였으나 시간이 오래되면서 또한 멀어지게 되었으니 폐단과 잘못됨이 없을 수 없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폐단과 잘못됨이 있으면 또한 계승과 변혁이 없을 수 없으니 通變하여 지극히 마땅함을 구하여야 한다³⁷⁾.”라고 하여 저작 동기를 밝히고 조선에서 지속적으로 활용

되어 왔던 『東醫寶鑑』을 기준 삼아 입상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을 편찬하고 있다³⁸⁾.

『醫宗損益』 「附餘」는 『醫宗損益』 끝에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 藥性歌 관련 저술로 『醫宗損益』의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12集 중에 누락되어 閏集으로 표기되어 있고³⁹⁾, 序, 凡例가 별도로 기재 되어 있으며, 황도연이 직접 서문 끝에 『醫宗損益』보다 1년 늦은 1868년(고종 5년)에 저술하였다고⁴⁰⁾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먼저 『醫宗損益』을 저술한 후 나중에 보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도연은 『醫宗損益』 「附餘」 凡例 중에서 기존의 本草 책이 너무 방대하여 바라보기만 해도 종종 잠이 쏟아졌으므로 『雲林

36) 김신근 편. 황도연, 황필수 저. 한국의학대계 27 證脈方藥合編(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203. “嗚呼慟哉. 嗣子繼世, 尚不忍讀父之書, 況敢抄父之所傳乎. 然坊人入梓中掇, 亦不可不念, 既葬後二月拭涕卒業而歸之. 金根之誤在所難免.”

37) 김신근 편. 황도연 저. 한국의학대계 25 醫宗損益(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p.6-7. “古之爲醫藥者, 其始莫不宜於當世, 而及其久且遠也, 固不能無弊失者, 理勢使然也. 其有弊而失則亦不能無因革, 通變必求其至當, 此余醫宗損益之所以作也.”

38) 김신근 편. 황도연 저. 한국의학대계 25 醫宗損益(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17. “寶鑑爲東醫之習熟而名目頗詳, 今此如之以便臨症之指南.”

39) 김신근 편. 황도연 저. 한국의학대계 25 醫宗損益(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395.

40) 김신근 편. 황도연 저. 한국의학대계 25 醫宗損益(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376. “聖上丁卯成醫宗損益六卷, 今又輯藥性一卷, 是謂損益附餘... 歲戊辰暮春下澣惠庵題.”

歌括』에서 요점을 뽑아 외기 쉽도록 하였고 門類에 따라 本草를 분류하였으며 『濟衆新編』의 藥性歌와 새로 만든 藥性歌를 추가하여 편성하였다고 특히 凡例 중에는 李時珍의 『本草綱目』을 따라 本草를 분류하여 편리하게 살펴보도록 하였더라는⁴¹⁾ 문장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당대에 『本草綱目』의 자연 속성 분류가 本草 분류의 기준으로 이미 확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⁴²⁾. 『醫宗損益』 「附餘」는 『東醫寶鑑』 「湯液編」과 동일하게 「五色所主」, 「五味所主」, 「升降浮沈之義」, 「藥有上下內外之別」 등의 총론에 해당하는 綱領이 앞에 나오고 이어 4언 4구의 歌賦體 문장과 주석으로 이루어진 藥性歌로 구성되어 있으며 藥性歌는 『壽世保元』 藥性歌 360首, 『濟衆新編』 藥性歌 80首, 新增 藥性歌 73首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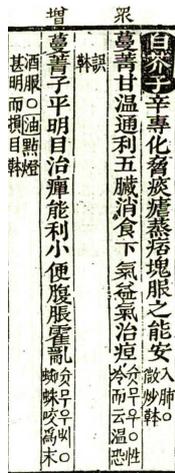


그림 2 『醫宗損益』 「附餘」의 藥性歌

2) 『本草綱目』이 『醫宗損益』 「附餘」 藥性歌에 미친 영향

『醫宗損益』 「附餘」의 藥性歌는 특별한 本草 분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던 『濟衆新編』 藥性歌와는 달리 『本草綱目』의 本草 분류 방식인 자연 속성 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표 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醫宗損益』 「附餘」의 本草 분류는 『本草綱目』과 분류 방식, 분류 항목 배열, 분류 항목, 本草의 분류 항목 배속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분류 방식에 있어 『本草綱目』은 먼저 ‘水部, 火部, 土部, 金石部, 草部’ 등의 대분류로 本草를 구분하고 대분류인 草部를 다시 소분류인 ‘山草類, 芳草類,

濕草類, 毒草類, 蔓草類, 水草類, 石草類, 苔草類, 雜草類, 有名未用’ 등으로 재분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醫宗損益』 「附餘」에서는 대분류 없이 『本草綱目』 소분류만으로 本草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배열 순서에 있어 『本草綱目』의 本草 대분류는 ‘水部, 火部, 土部, 金石部, 草部, 穀部, 菜部, 果部, 木部, 服器部, 蟲部, 鱗部, 介部, 禽部, 獸部, 人部’의 ‘從微到巨, 從賤至貴’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 반면, 『醫宗損益』 「附餘」에서는 별도의 대분류가 없어 확정할 수 없지만 내용상 ‘草部, 木部, 菜部, 果部, 穀部, 蟲部, 鱗部, 介部, 禽部, 獸部, 人部, 水部, 土部, 金石部’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어 임상 활용 상의 편의를 배려하고 있다⁴⁴⁾. 세 번째 本草 분류 항목에 있어 『本草綱目』 대분류 중 ‘火部’와 ‘服器部’에 해당하는 本草를 『醫宗損益』 「附餘」에서는 기재하고 있지 않고, 『本草綱目』 대분류 중 ‘金石部’와 ‘水部’에 해당하는 本草는 ‘天水類’나 ‘地水類’, ‘金類’나 ‘玉類’ 등의 소분류 없이 『醫宗損益』 「附餘」에서는 ‘金石’, ‘水’의 단일항목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本草綱目』 ‘草部’ 중의 ‘雜草類’, ‘木部’ 중의 ‘雜木類’, ‘菜部’ 중의 ‘水菜類’, ‘蟲部’ 중의 ‘濕生類’, ‘禽部’ 중의 ‘山禽類’, ‘獸部’ 중의 ‘寓類’, ‘怪類’ 등의 분류 항목은 『醫宗損益』 「附餘」 중에서 누락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네 번째 本草 분류 배속에 있어서도 『本草綱目』 중 山草類와 芳草類에 각각 배속되어 있던 沙參, 牡丹 등을 『醫宗損益』 「附餘」에서는 각각 ‘蔓草’, ‘灌木’ 등으로 바꾸어 배속하고 있다(표 11)⁴⁵⁾.

이처럼 『醫宗損益』 「附餘」 藥性歌와 『本草綱目』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醫宗損益』이 『本草綱目』의 本草 분류 방식을 받아들여 범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임상 활용과 검색 편의라는 측면에서 本草를 새롭게 해석하려 하는 저자의 관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1) 김신근 편. 황도연 저. 한국의학대계 25 醫宗損益(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388. “藥目次第, 稍從李氏綱目, 以便查閱, 而或有一二部易位者, 或有一二種移入者, 務得歸正.”

42)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家. 1963. p.359.

43) 김신근 편. 황도연 저. 한국의학대계 25 醫宗損益(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377.

44) 김신근 편. 황도연 저. 한국의학대계 25 醫宗損益(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388. “藥目次第, 稍從李氏綱目, 以便查閱, 而或有一二部易位者. 如草木之爲先, 金石之居末是也.”

45) 김신근 편. 황도연 저. 한국의학대계 25 醫宗損益(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388. “藥目次第, 稍從李氏綱目, 以便查閱, 而或有一二部易位者, 如草木之爲先, 金石之居末是也, 或有一二種移入者, 如沙參之入蔓草, 牡丹之入灌木是也, 務得歸正.”

표 11 『醫宗損益』 「附餘」 藥性歌의 『本草綱目』 本草 분류 배속 변경

本草名	『本草綱目』	『醫宗損益』 「附餘」	本草名	『本草綱目』	『醫宗損益』 「附餘」
鴛粟殼	稷粟	濕草	牡丹皮	芳草	灌木
蒲公英	柔滑菜		桑螵蛸	卵蟲	
沙參	山草	蔓草	桑寄生	萬木	香木
葦澄茄	味果		檳榔	夷果	
胡椒			大腹皮		
扁豆	菽豆	柔滑菜	枇杷葉	山果	山果
山藥	柔滑菜		茶茗	味果	
絲瓜	瓜菜	芳草	吳茱萸		川椒
			竹筍	柔滑菜	
大茴香	董辛菜	芳草	冬葵子	濕草	柔滑菜
小茴香			覆盆子	蔓草	山果
百合	柔滑菜				

표 12 『萬病回春』, 『壽世保元』, 『濟衆新編』과 『醫宗損益』 「附餘」의 藥性歌 비교

본초명	출처	약성기
萬病回春	人參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榮養衛 肺中實熱, 並除虛火動, 勞嗽吐血, 勿用肺虛氣短, 少氣虛喘煩熱, 去蘆用之, 反藜蘆。	人參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榮養衛 肺中實熱, 並除虛火動, 勞嗽吐血, 勿用肺虛氣短, 少氣虛喘煩熱, 去蘆用之, 反藜蘆, 忌鐵。
壽世保元	人參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營養衛 去蘆用, 反藜蘆。	人參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營養衛 去蘆用, 反藜蘆, 忌鐵。
人參	濟衆新編	人參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榮養衛 肺中實熱, 並除虛火動, 勞嗽吐血, 勿用肺虛氣短, 少氣虛喘煩熱, 去蘆用之, 反藜蘆, 忌鐵。
醫宗損益	醫宗損益	人參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榮養衛 補氣須用人參, 血虛亦須用之, 〇人參補五臟之陽, 沙參補五臟之陰, 〇回元氣於無何有之鄉, 〇得升氣助脾火, 得茯苓助腎火, 得麥門冬生脈, 得乾薑補氣, 得芪甘除大熱助陰火, 又唐家聖藥(本草), 〇効用(備要), 〇[補]弱者以參蘆代瓜蒂, 痰喘胸中參蘆加竹瀝吐之(本草), 〇[尾]主下氣同補虛服, 〇[葉]主產後感冒同白吉史服(俗方)。
黃芪	醫宗損益	黃芪性溫 收汗固表 托瘡生肌 氣虛莫少 補虛聖藥, 〇入手太陰少陰命門(本草), 〇達表生用, 補虛聖藥, 〇治下虛炒, 此說非也, 氣升則腎受虛而崩帶等症自止(備要), 〇惡龜甲白朮皮, 得防風其功愈大, 乃相畏而相使也, 〇治諸虛益氣壯脾去熱, 排膿活血爲瘡家聖藥, 無汗則發之, 有汗則止之, 治小兒百病, 婦人崩帶諸疾(本草), 〇四君子湯去非若加黃芪, 名保元湯, 白朮燥濕, 茯苓滲水, 故后症忌之(備要), 〇產率越, 皮黃肉白軟綿者佳。

* ()는 주석 중에 기재된 작은 글씨를 표기한 것임.

3) 『醫宗損益』 「附餘」와 『雲林歌括』, 『濟衆新編』 藥性歌 기술 방식의 차이

『醫宗損益』 「附餘」는 鄉藥과 수입 약재의 분간을 위해 『東醫寶鑑』, 『濟衆新編』 등의 기존 조선 의서에서 匡郭 바깥 상단부에 ‘唐’이라는 글자를 기재하던 방식

에서 벗어나 양각과 음각을 활용하여 향약과 수입 약재를 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 중의 蔓菁, 蔓菁子와 같이 鄉藥의 경우에는 그 본초명을 양각으로 인쇄한 뒤 하단에 ‘숫무우’, ‘숫무우씨’와 같은 향약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있는 반면 白芥子와 같은 수입 약재의 경우에는 본초명을 음각으로 인쇄하고 향약명을 기재하지 않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⁶⁾. 그리고 匡郭 바깥 상단부에는 ‘衆’, ‘增’의 표기를 더하여 그 출처가 『雲林歌括』인지, 아니면 『濟衆新編』인지 그렇지 않으면 新增한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출처가 혼동되는 것을 피하고 검열하는데 편리하도록 한 저자의 세심함이 반영된 기재 방식으로 볼 수 있다⁴⁷⁾.

또한 『醫宗損益』 「附餘」에서는 4인 4구의 藥性歌 하단에 기존의 『雲林歌括』, 『濟衆新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대한 양의 주석을 기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도연은 凡例 중에서 “藥에는 氣味, 歸經, 功用, 禁忌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나 노랫글에는 글자수가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생각할 수 없어 이제 미진한 부분을 주석으로 처리하고 綱과 目으로 분류하여 분명하게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⁴⁸⁾. 표

46) 김신근 편. 황도연 저. 한국의학대계 25 醫宗損益(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389. “知者明言鄉藥之俗謔是也. 僻者別之他產之陰刊是也.”

양각으로 처리되어 鄉藥임을 표시하고 있는 本草의 경우 대부분 하단에 鄉藥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나 茯苓, 茯神, 厚朴 등은 鄉藥임이 분명함에도 한글 鄉藥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반대로 음각으로 처리되어 수입 약재임을 밝히고 있는 本草 중 石斛, 荔枝, 蠶蠶 등은 각각 ‘석곡풀’, ‘레치’, ‘누에죽어머리니’ 등과 같이 한글로 本草 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수입 약재라 하더라도 이미 한글 명이 존재할 정도로 조선 내에서 많이 활용되었거나 또는 조선 자생 약재로 한글 명이 있었지만 경제적 타당성 등으로 인해 수입되었던 것 등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음각과 양각을 활용한 표기 방식은 본래 儒家에서 經을 주석할 때 활용하던 방식이지만 陶弘景이 『本草經集註』를 저술하며 본초학 분야에 도입하였다(박현국, 김기욱, 이병욱 공역. 傅芳, 鄭金生, 廖育群 저. 중국과학기술사. 서울. 일지사. 2003. p.415). 본초명만을 음각과 양각으로 표기하는 방식은 『醫學入門』 등에서도 이미 시도된 바 있다.

47) 김신근 편. 황도연 저. 한국의학대계 25 醫宗損益(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388. “此編歌括, 既以雲林爲主, 則一例出處, 嫌於重複, 但於濟衆與新增, 各書一衆一增, 以便檢閱.”

48) 김신근 편. 황도연 저. 한국의학대계 25 醫宗損益(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388. “藥有氣味經路功用禁忌等, 數端而歌是限于字句, 則亦不能無忽畧之差矣. 今於未盡處註必詳明, 一綱一目類斯學矣.”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醫宗損益』「附餘」藥性歌의 주석은 氣味, 歸經, 功用, 禁忌 등 뿐 아니라 本草 부위별 활용, 처방 응용, 산지, 구별법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雲林歌括』, 『濟衆新編』 등에서 보였던 本草 초학자를 위한 정보 제공을 뛰어 넘어 의가들에게 本草와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藥性歌로 볼 수 있으며 三木榮의 지적대로 藥性歌를 중심으로 本草 관련 지식을 기술 해내는 ‘藥性歌本草學’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⁴⁹⁾.

4) 『醫宗損益』「附餘」의 新增 藥性歌와 새로운 本草 지식 추가

『醫宗損益』「附餘」의 藥性歌 중에는 『壽世保元』과 『濟衆新編』에서 인용한 것 이외에 새롭게 추가한 新增 藥性歌가 73首 기재되어 있다⁵⁰⁾. 『濟衆新編』 新增 藥性歌의 경우 조선에 새롭게 들어온 本草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물고기, 곡식, 과일 등의 음식물을 위주로 『東醫寶鑑』에 의거하여 편찬한 반면, 『醫宗損益』「附餘」의 新增 藥性歌는 貫衆, 白蘚皮, 樺皮, 蔓菁子, 落花生, 北魚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本草를 특별한 제한 없이 추가하고 있으며 표 14을 통해 알 수 있듯이 『本草綱目』이나 『本草備要』 등과 같은 명칭대의 本草 서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藥性歌로 변형시키고 있다. 이는 당대에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本草들이 활용되었으며 명칭대 이후 중국에서 발달하였던 임상 본초학 관련 지식이 조선에 이미 확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 『醫宗損益』「附餘」에서는 당대 조선 의학계에 축적된 本草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개별 本草에 대해 세롭고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東醫寶鑑』「湯液編」草部の 茴香 관련 내용 중에서는 小茴香이나 大茴香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조선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八角茴香이 小茴香인지 아니면 大茴香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 『濟衆新編』에서는 大茴香은 唐藥, 小茴香은 鄉藥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서술은 생략하고 있는데 『醫宗損益』「附餘」藥性歌에서는 八角茴香이 수입 약재인 大茴香의 한 종류임을 밝히고 小茴香은 바로 조선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鄉藥이라고 서술하여 좀 더 분명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⁵¹⁾. 또 『東醫寶鑑』「湯液編」草部에서는 葶藶를 ‘멸잇불휘’라고 하고 ‘一名 土茯苓’이라고 하여 葶藶와 土茯苓을 혼동하고 있으나 『醫宗損益』「附餘」藥性歌에서는 새롭게 土茯苓을 추가하고 葶藶는 ‘열잇불휘’, 土茯苓은 ‘상비휘’라고 기재함으로써 둘 간에 존재하던 혼란을 구별하고 있다⁵²⁾. 뿐만 아니라 『醫宗損益』「附餘」藥性歌 鬱金 조문에서는 『雲林歌括』에서 큰 것은 鬱金, 작은 것은 薑黃이라고 하여 鬱金과 薑黃을 같은 종류로 여기는 것을 비판하며 張景岳의 의견을 빌어 薑黃이 鬱金보다 氣味가 강렬하다⁵³⁾라고 서술한다.

위와 같은 황도연의 성과에 대해 三木榮(1963)은 그 일부만을 들어 당대의 혼란했던 사회상을 반영하는 간요 또는 간편 의학이라고 규정하고 本草 지식의 비망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⁵⁴⁾라 평가절하 하였지만, 민간 의료 성장이라는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내용의 번잡스러움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던 『東醫寶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편찬되었던 『濟衆新編』을 뛰어넘어 조선 의학의 대표 저작으로 『東醫寶鑑』을 인정하면서 本草를 비롯한 새로운 의료 지식의 보급⁵⁵⁾과 함께 임상 활용 및 검색의 편리함까지도 염두에 두었던 『醫宗損益』의 성과는 높이 재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51) 신길구 저. 신씨본초학 각론. 서울. 고문사. 1988. p.316.
 52) 신길구 저. 신씨본초학 각론. 서울. 고문사. 1988. p.341.
 53) 김신근 편. 황도연 저. 한국의학대계 25 醫宗損益(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410. “鬱金薑黃, 既爲異草, 而雲林云, 大者薑黃, 小者鬱金, 以爲一類者誤矣… 薑黃… 功與鬱金稍同而氣味尤烈 景岳.
 54)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家. 1963. p.258, 358.
 55) 황도연은 『醫宗損益』의 霍亂 症治 중에서 당대에 유행했던 콜레라 즉 輪症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증상, 처치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김신근 편. 황도연 저. 한국의학대계 25 醫宗損益(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p.79-80).

49)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家. 1963. p.358.
 50) 김신근 편. 황도연 저. 한국의학대계 25 醫宗損益(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377.

표 13 『東醫寶鑑』, 『本草綱目』, 『本草備要』와 『醫宗損益』 「附餘」의 藥性歌 비교

본초명	출처	약성가
醫宗損益	增 鮑魚味美 膠可作膠 治破傷風 亦可充庖 <small>一名江鮑魚鱗 ○疑今民魚寶鑑</small>	
鮑魚	東醫寶鑑 鮑魚 生南海, 味美, 無毒. 膠可作膠. 一名江鮑入門. ○一名魚鱗. 治破傷風 <small>正傳</small> . ○疑是今之民魚 <small>俗方</small> .	
醫宗損益	增 臘雪水冷 天行溫疫 鮮一切毒 洗目退赤 <small>것들남평의은눈녹은물 ○立春雨水, 一夫妻各飲一杯, 還房有子. (이하생략)</small>	
臘雪水	本草綱目 臘雪 <small>宋嘉祐(중략)</small> 氣味甘冷, 無毒. 主治解一切毒, 治天行時氣溫疫, 小兒熱癩狂啼, 大人丹石發動, 酒後暴熱, 黃疸, 仍小溫服之 <small>藏器</small> . 洗目退赤 <small>張從正</small> . 煎茶煮粥, 解熱止渴 <small>吳瑞</small> . 宜煎傷寒火喝之藥, 抹排亦良 <small>時珍. (이하생략)</small>	
醫宗損益	增 落花生溫 果中佳宜 性能潤肺 香能舒脾 <small>出閩廣, 蘇落地而結實(備要)</small>	
落花生	本草備要 落花生 <small>補脾潤肺</small> 辛能潤肺, 香能舒脾. 果中佳品, 出閩廣. 蘇生花落地而結實, 故名. (중략) 炒食.	

* 『本草備要』는 項長生 주편, 汪昂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를 인용함.

5) 『方藥合編』의 편찬과 藥性歌

『方藥合編』은 황도연이 자신의 저서 『醫方活套』(1869)가 간단한 구성과 풍부한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나 本草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 충분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다가 아들 황필수(黃泌秀, 1842-1914, 號 慎村, 慎村子)에게 汪訥庵의 『本草備要』와 『醫方集解』를 합편한 것을 본받아 『醫方活套』에 『醫宗損益』 「附餘」의 本草 부분 用藥綱領, 救急法, 禁忌 등 10여 가지 내용을 덧붙일 것을 명하여 편찬된 서적이다⁵⁶⁾. 편찬 도중 황도연이 사망하자 황필수가 부친의 유지를 이어 편찬, 간행하였고 대중들에게 실용에 적합하며 응급적 참고에도 빠뜨릴 수 없는 편람서로 높이 평가 받아 한의사들의 상비서로 지금까지도 애용되고 있다⁵⁷⁾. 『方藥合編』의 실제 저자로 볼 수 있는 황필

수의 행적은 분명하지 않으나 고종 때에 振威縣令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方藥合編』 외에 『校正全韻玉篇』, 『御定奎章全韻 治洞本』, 『達道集註大全』, 『百戰奇法』, 『喪祭類抄』, 『新式儒胥必知』, 『增補四禮便覽』, 『增刪濼洛風雅 校訂本』, 『進修堂監定時行簡禮彙纂』, 『斥邪說』 등을 저술하여 학자이자 전문 편집자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⁸⁾.

표 14 『醫宗損益』 「附餘」, 『方藥合編』의 藥性歌 비교

본초명	출처	약성가
醫宗損益	人參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榮養衛 <small>○生涼熟溫. ○入手入氣血中之血藥○入門 ○以細辛密封後年不蛀 ○反藜蘆 畏五靈脂白角黑豆紫石英. 忌鐵. ○補氣須用人參. 血虛亦須用之. ○人參補五臟之陽. 沙參補五臟之陰. ○回元氣於無何有之壑. ○得升麻則脾胃火. 得茯苓則腎火. 得麥門冬生脈. 得乾薑補氣. 得氏甘除大熱除陰火. 又唐家聖藥(本草). ○始用(備要). ○[藏]弱者以參蘆代瓜蒂. 痰畜胸中參蘆湯加竹瀝吐之(本草). ○[尾]主下氣同橘薑服. ○[葉]主產後感冒同白吉更服(俗方).</small>	
人參	方藥合編 人參味甘補元氣 止渴生津調榮衛 <small>○生涼熟溫. ○入手入氣血中之血藥○入門 ○以細辛密封後年不蛀 ○反藜蘆 畏五靈脂白角黑豆紫石英. 忌鐵. ○補氣須用人參. 血虛亦須用之. ○人參補五臟之陽. 沙參補五臟之陰. ○回元氣於無何有壑. ○得升麻則脾胃火. 得茯苓則腎火. 得麥門冬生脈. 得乾薑補氣. 得氏甘除大熱除陰火. 又唐家聖藥(本草). ○始用(備要). ○[藏]弱者以參蘆代瓜蒂. 痰畜胸中參蘆湯加竹瀝吐之(本草). ○[尾]主下氣同橘薑服. ○[葉]主產後感冒同白吉更服(俗方).</small>	

『方藥合編』은 본문이 4段表式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2, 3, 4단은 『醫方活套』의 내용을 전제하고 있으며 1단에는 『醫宗損益』 「附餘」 藥性歌를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藥性歌의 형식이 4언 4구였던 기존의 『醫宗損益』 「附餘」의 藥性歌와 달리 표 14와 같이 7언 2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損益本草目錄」 첫머리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보다 외우고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한 재편집으로 볼 수 있다⁵⁹⁾. 4언 4구에서 7언 2구로의 전환은 수식어라던지, 중복되는 의미의 단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醫宗損益』 「附餘」 藥性歌의 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지는 않다. 이외에 『方藥合編』의 藥性歌는 『醫宗損益』 「附餘」와 藥性歌 수, 本草의 분류, 배열 순서 등에서 별다른 차이를 찾아

56) 김신근 편. 황도연, 황필수 저. 한국의학대계 27 證脈方藥合編(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203. “中有活套一書, 書簡施博, 條理明暢, 人一見之, 皆可按證而治. 雖素所未攻者, 無不欲蓄一本, 病於印發不給... 公曰, 書固可傳, 用之在人, 不必廣. 且人不讀本草, 徒法何足以盡活套哉. 此余之志切救世, 而亦猶恐疑似之致誤也... 命子傳書, 書例倣汪訥庵, 本草備要醫方集解合編之法, 先之以損益本草章之, 以用藥綱領及救急禁忌等十數條, 命之曰方藥合編.”

57)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458.
58) 한의신문 : 惠菴 黃度淵선생님과 儒醫 慎村 黃泌秀선생님의 울마른 재조명 [Internet] 2009 [cited 2009 September 10]. Available from :http://www.akomnews.com/김중천, 黃泌秀와 그의 편간서들, 서지학연구. 10. 1994. p.276.
59) 김신근 편. 황도연, 황필수 저. 한국의학대계 27 證脈方藥合編(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215. “歌用七言爲句, 以便誦讀.”

볼 수 없어 거의 그대로를 전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方藥合編』 藥性歌는 石油의 藥性歌와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石油 藥性歌는 『醫宗損益』 『附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方藥合編』이 편찬되면서 새로이 보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III. 結論

藥性歌는 중국 北宋, 南宋, 金代의 본초학 발전과 北宋 이래 지식인 계급이 의학계에 유입됨에 따라 왕성히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간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龔廷賢의 『萬病回春』 藥性歌이지만 虞搏의 『蒼生司命』에 실려 있는 藥性歌와 큰 차이가 없어 龔廷賢의 명성과 『萬病回春』의 인기로 인해 龔廷賢의 저작으로 잘못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萬病回春』 藥性歌와 기재 규모, 기재 방식, 기재 내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壽世保元』의 藥性歌는 이와 같은 추측에 보다 강한 설득력을 제공한다.

한국 의서 중에 실려 있는 藥性歌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의서로는 『濟衆新編』이 있다. 『濟衆新編』은 정조 년간의 관찬 의서로 이후 『醫宗損益』, 『方藥合編』, 『醫方撮要』, 『東武遺稿』, 『醫鑑重磨』 등 상당수 한국의 의서들에 수재된 藥性歌의 전범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주로 『萬病回春』을 참고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똑같이 전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상 경험과 한반도의 본초학적 전통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변형을 피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鄉名을 기재하고, 구하기 쉬운 本草를 위주로 藥性歌를 편찬하며, 해당 本草에 대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주석을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은 조선 실정에 적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新增 藥性歌는 『本草綱目』, 『景岳全書』 등의 새로운 의약 지식 뿐 아니라 『東醫寶鑑』 『湯液編』 내용을 근거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물과 관련된 藥性歌를 새롭게 게재하고 있어 중국 의학이 한반도에 들어와 토착화 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황도연은 본인의 대표 의서 중 하나인 『醫宗損益』의 『附餘』에서 藥性歌를 게재하고 있으며 그의 마지막

저작으로 볼 수 있는 『方藥合編』 중에서도 일부 변형된 모습의 藥性歌를 신고 있다. 『醫宗損益』 『附餘』 藥性歌 역시 대부분의 藥性歌와 유사하게 4언 4구로 이루어져 있지만 먼저 鄉藥과 수입 약재의 분간을 위해 양각과 음각을 활용하여 향약과 수입 약재를 표기한 점, 匡郭 바깥 상단부에는 ‘衆’, ‘堦’의 표기를 더하여 출처와 新增 여부를 분명히 한 점, 藥性歌 하단에 氣味, 歸經, 功用, 禁忌 등 뿐 아니라 本草 부위별 활용, 처방 응용, 산지, 구별법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재한 점, 『本草備要』 등과 같은 최신의 본초학적 지식이나 당대 鄉藥과 관련된 최신 지견을 근거로 藥性歌를 구성한 점 그리고 『本草綱目』의 자연 속성 분류를 적용하며 本草 분류 배속 주체적으로 변형시킨 점 등으로 인해 藥性歌를 중심으로 한 醫家의 本草學인 藥性歌 本草學을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⁶⁰⁾.

三木榮은 조선 전기의 ‘鄉藥本草學’, 중기의 ‘明醫學과 鄉藥方의 융합’과 대등하게 조선 후기 본초학의 특징을 ‘藥性歌本草學’이라고 지적하며 藥性歌를 활용한 醫家의 本草學,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특이하게 이루어진 本草學, 그렇지만 의학의 보조적인 역할을 힘겹게 수행하는 簡易便宜한 본초학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藥性歌는 중국에서 기원하였던 歌賦體의 문장 양식이 의학계에 도입된 결과물로서 本草 관련 지식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 양식에 지나지 않는다. 『濟衆新編』이나 『醫宗損益』 등 조선 의서 중에 수재된 藥性歌는 중국 의서 중에서 그 서술 형식을 빌려 오기는 하였으나 鄉藥과 唐藥의 구별, 鄉藥 본초의 활용, 개별 의가 醫論의 반영 등과 같은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임상 실천 또는 본초 활용의 경험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 후기 본초학의 특징을 간단하게 ‘藥性歌本草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피상적인 결과물에 대한 서술에 불과하며 藥性歌 개별 문장의 변형과 관련된 조선 의학의 본초학적 성취를 도외시 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조선 후기 본초학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연구 및 새로운 각도에서의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60)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家, 1963, p.358.

IV.참고문헌

<논문>

1. 김종천, 黃泌秀와 그의 편간서들, 서지학연구. 10. 1994. p.276.
2. 紀征瀚. 古本草歌賦의 文獻研究. 中國中醫研究院 석사학위 논문. 2005. p.9, 20, 40, 84, pp.19-20.
3. 박경남, 맹옹재. 欄江賦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1992. 13(1). p.66.
4. 지창영. 濟衆新編의 의사학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p.41.
5. 지창영, 김남일. 濟衆新編을 통해 살펴본 강명길의 의학사상. 경희한의대논문집. 21(1). 1998. p.104.

<단행본>

1. 김기욱 외. 한의학통사.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466.
2.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458.
3. 김신근 편. 강명길 저. 한국의학대계 18 濟衆新編 (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8, 628.
4. 김신근 편. 황도연 저. 한국의학대계 25 醫宗損益 (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17, 376, 377, 387, 388, 389, 395, 410. pp.6-7, 79-80.
5. 김신근 편. 황도연, 황필수 저. 한국의학대계 27 證脈方藥合編(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203, 215.
6. 남산당편집국 편. 황도연 저. 對譯 證脈方藥合編. 서울. 남산당. 1983. p.4.
7.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家. 1963. p.239, 253, 258, 358, 359.
8. 신길구 저. 신씨본초학 각론. 서울. 고문사. 1988. p.316, 341.
9. 유희영, 신민교, 맹옹재. 한국의약인명사진. 서울. 의성당. 1991. p.82.
10. 李世華, 王育學 주편. 龔廷賢 저. 壽世保元. 龔廷賢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16, 471, 1429, 1414, pp.1407-1409.

<인터넷 자료>

1.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http://www.dongui400.or.kr/>
2.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3. 조선잡과방목 <http://www.koreaa2z.com/>
4.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5.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
6. 한의신문 <http://www.akomnews.com/>